정부와 기업, 관치중독에 빠졌나

경제포커스

나지홍
경제부 차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인 없는 기업' 발언으로 이슈가 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본주의와 기업 역사가 오래된 미국·유럽에서는 오히려 상장 기업 중에서 '주인 있는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렵다. 창업 후 여러 세대를 거치며 대주주는 사라지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기자가 뉴욕 특파원이던 2014년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 2위인 이베이의 전문경영인 존 도나호 회장(현 나이키 CEO)과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 investor)' 칼 아이컨의 대결이 화제였다. 아이컨은 이베이가 2002년 인수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을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페이팔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베이와 경쟁 관계인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베이를 배 불려주는 페이팔 이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베이도 페이팔의 급성장에 안주하는 바람에 본업인 전자상거래에서 1위인 아마존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도나호 회장은 아이컨에게 기업 사냥꾼이란 낙인을 찍고, "이베이의 장기 성장을 위해선 페이팔과의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생각은 달랐다. "페이팔이 이베이와 남남이 되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고객으로 유치해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아이컨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결국 9개월간의 분쟁 끝에 도나호 회장은 백기를 들고 2선 퇴진했고, 페이팔은 이베이에서 분리됐다. 분할 상장 첫날 이베이 시가총액은 347억달러였고, 페이팔은 500억달러였다. 새우(이베이)가 고래(페이팔)를 품고 있었던 셈이었다. 지금은 페이팔 시총이 949억달러로 이베이(272억달러)의 3.5배가 됐다.

소유·경영 분리된 美·유럽선 행동주의 투자자가 CEO 견제 정부가 해결사 역할 반복하면 시장은 문제해결능력 잃어

소유 분산 기업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잘못해도 주주들이 견제하기 어렵다. 경영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응집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나서는 게 행동주의 투자자다. 이들은 일정 지분을 취득해 주주 자격을 얻은 뒤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이사진이나 CEO 교체, 기업 분할이나 합병 등을 요구한다.

행동주의는 과거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비싼 값에 파는 수법으로 벌처(Vulture·대머리 독수리) 펀드라는 악명을 얻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잦아든 뒤에는 기업 사냥보다 기업 실적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홀대받던 소액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는 "행동주의 투자자는 상장 기업에 '뜻밖의 구원자(unlikely saviour)' "라고 평했다.

행동주의가 CEO를 견제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선 정부가 이 역할을 맡아왔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다음 달 있을 KT 회장 선출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정부 개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다는 장점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긴다. 무엇보다 시장이 관치(官治)에 중독돼 문제를 자체 해결할 능력을 잃는다. 초등생 자녀의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 주면 당장 학교에서 혼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녀의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는 "정부 개입은 시장의 실패가 정부 대책으로 극복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든다"고 했다. 정부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고 근본적으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장의 자정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깊이 새겼으면 한다.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173]

포르투갈의 푸른 타일

흔히 포르투갈의 이미지는 대구(大口)를 비롯한 해산물 요리, 포트 와인, '서핑의 천국' 정도가 알려져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바로 코발트빛 타일로 내외부가 마감된 건물의 벽들〈사진〉이다. 이 푸른 타일들은 아줄레주(Azulejos)라고 불리는데, '작고 반짝이는 돌' 이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단어다. 그 이름처럼 얇은 정사각형으로 절단되어 유약이 입혀진, 지극히 단순한 형태다.

타일은 건물의 큰 벽면을 마감하고, 무한한 조합과 변형으로 장식하기 좋은 재료다. 보통 새나 나뭇잎과 같은 소재가 많지만, 수천 수만 개의 타일이 합쳐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도 한다. 성직자의 생활이나 대항해의 시대를 묘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마치 고딕성당의 총천연색 스테인드글라스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타일의 기원은 이집트로 알려져 있지만 그 활용이 보편화된 곳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다. 특히 형상을 만들지 않고 기하학적 패턴으로 의미를 표시하는 이슬람 건축의 관례상 타일은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적합한 재료였다. 이베리아반도에 13세기 무어인들이 침입하면서 서서히 이슬람 문화가 정착하게 된다. 이후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Manuel) 1세가 스페인의 세비야를 방문하고는 타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적극 장려, 도입하게 되었다.

포르토의 상벤투(São Bento) 기차역을 비롯하여 성당, 주택,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 폭넓게 응용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푸른색이 채택된 건 명나라의 청화백자의 영향 등으로 우아하다고 인식되던 색이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는 낙후된 질감에 정겨움이 느껴지는 도시가 많다. 여기에 푸른 타일은 하나의 특색 있는 거리의 풍경으로, 또 공공미술로 자리를 잡은 듯 보인다. 그리고 건물들은 이 타일의 패턴과 그림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청한다. 음식이나 문화재, 자연환경과 더불어 어느 나라가 고유의 색과 재료로 기억되는 건 특별한 유산이다.

뉴욕 FIT 교수·마이애미대 명예석좌교수

社 說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장관(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었다.

명확한 위법 사실이 나온 게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 장관을 때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이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 수호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 지도부는 의원들 출석 현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국회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엔 정쟁 중단과 사고 수습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는 공백이 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탄핵했는데 그로 인해 업무 공백은 더 커지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힘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몇 달간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날의 국회 표결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동영상 사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로 판결해야 한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는데 죄를 물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하고 31세이던 2021년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누가 봐도 과한 액수다. 곽 전 의원은 법조인 시절부터 김만배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국회의원으로서 김씨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50억원을 줬겠는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 곽 전 의원 아들 이외에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도 없다.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 "연령, 경력,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성인으로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한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文의 의식 세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책을 소개하며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이 책에 대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도 했다. 조씨가 새로 낸 책은 루소, 로크 등 법과 관련된 고전을 소개한 책이다. 조씨는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조씨는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재판을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고 '출간 하루 만에 10만부 판매 돌파'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고 자랑하더니, 유죄 판결을 받은 날도 무죄가 난 부분만 언급하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문 전 대통령이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조씨에게 '안타깝다' 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조씨 유죄 판결은 그런 문 정부와 조씨에 대한 단죄였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을 놓고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말할 수 있나.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도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조국 사태로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까지 내줬지만 문 전 대통령 역시 사과한 적이 없다.

조씨 유죄 판결 사흘 만에 조씨 딸은 "나는 떳떳하다"고, 닷새 만에 문 전 대통령은 "안타깝다"고 한다. 조씨 가족의 불공정에 상처받은 국민을 향해 조국 저서 속에서 법과 정의를 발견하라고 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의식 세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박원순·문재인·신영복 ·언론노조 편들던 안철수는 달라졌는가?
뉴데일리 newdaily.co.kr

안철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유진영으로 귀화한건가,
그저 먹겠다는건가

안철수는 '뻐꾸기 작전' 펴는데...
빼앗기느냐, 물리치고 끌어오느냐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결정적인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을 그가 말한 적(敵) 안철수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그를 물리치고 국민의힘을 끌어오느냐?

안철수의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측엔 '뻐꾸기 작전'으로 비쳤을 것이다. 뻐꾸기는 남의 집에 들어와 주인을 밀어내고 그걸 제집으로 만든다.

안철수는 말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 말은 이와 다르다.

안철수의 몽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선 막바지인 2022년 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단일화 제의를 철회하고 22일 울산 중앙시장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안철수는 그만큼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에 불응했다는 이야기다.

인수위 시절에도 안철수는 총리직인지, 복지부 장관직인지를 제의받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공동정부보다는 '뻐꾸기 작전'에만 집착했던 것일까?

좌파가 뻥튀기기 하는 안철수

이런 불협화를 거치며, 윤-안 관계는 어쨌든 파탄났다. 그리고 좌파는 이 갈라진 틈새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좌파는 처음엔, 유승민·이준석을 부추겨 이쪽 진영을 갈라치려 했다. 그다음엔, '나경원 파동'을 우려먹으려 했다. 그러다 이젠, '안철수 현상'을 뻥튀기 하려 한다.

유승민·이준석은 자신들에게 기대된 역(役)을 '확신범'처럼 이행했다. 내부 총질이었다. 그러나 나경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억제했다. 선당후사였다.

안철수는 그러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안철수가 될 것인가, 그의 리더십을 빛바래게 할 미래권력 안철수가 될 것인가?

미래권력 안철수는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그는 중도확장론, 김건희 특검, 이상민 해임, 사드 배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미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두 태양 아래서 '윤석열 시대'가 과연 제대로 운항할 수 있을까?

국정운영 동반자인가 '적(敵)'인가?

자유인들은 그래서 물어야 한다. 안철수는 누구인가? 중도? 자료는 말한다. "그는 박원순·문재인 손을 들어주었다. 2017년엔 언론노조 KBS 본부에 찾아와 불법 파업을 지지했다. 신영복을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했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뜻일까?

그러다 그는 자유 진영으로 넘어왔다. 그는 같은 안철수인가, 달라진 안철수인가? 귀화하겠다는 것인가, 접수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진솔하게 고백한 바가 거의 없다.

그는 집권당 옥쇄까지 내놓으라 한다. 그는 밟아야 할 절차를 너무 생략한 것 아닌가?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론 안 된다. 우리는 안철수 당신을 너무 모른다. 당신이 소명한 게 너무 없기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